

정상 성인여성에서 폐경과 허리둘레의 관계

강지호, 계소신, 권혁태, 장윤정, 김종성, 허봉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폐경이 되면 신체 구성 성분의 조성에 변화가 일어나서 체지방이 증가하고, 지방의 분포에 변화가 일어나 복부비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부 비만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정상 성인 여성에서 폐경과 허리둘레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찾은 여성 수진자중 배제기준에 속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 60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와, 신체계측을 통하여 연령, 폐경력, 흡연력, 운동력, 식이습관,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를 알아내었고, 체지방분석기를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구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총 607명으로 폐경 전 여성이 285명, 폐경 후 여성이 322명이었다. 연령을 고려한 후,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폐경 전 그룹과 폐경 후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과 체질량 지수를 보정한 후 폐경 전 그룹과 폐경 후 그룹을 비교할 때, 허리둘레와 체지방률 모두 폐경 후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결론: 본 연구 결과 폐경은 허리둘레와 체지방률 모두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단어: 폐경, 연령, 비만, 허리둘레